

- 주요 뉴스: 미국 국채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급등. 재정 우려 심화와 부진한 압찰 수요 반영
 - 미국,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상계관세 예비 결정. 對中 AI칩 수출규제는 유지
 - ECB 주요 인사, 물가 목표 달성에 근접. 일부는 추가 금리인하 주장
 - 영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5개월 만에 최고치. 향후 금리인하 전망은 악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20년물 국채 압찰 수요 부진과 정부 부채 우려 재부각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급등과 반도체 관련주 중심 매물 증가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예상치 상회한 영국 4월 소비자물가 등으로 약보합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저조한 20년물 압찰 수요 등으로 3개월 만에 최고치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ECB 금리인하 기대 악화 등으로 4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372.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5.1원, 0.87% 하락). 한국 CDS 상승

		5/21일	5/20일	전일대비			5/21일	5/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844.6	5,940.5	-1.61%	국채 금리 10y	미국	4.60%	4.49%	+11bp
	유럽	553.82	554.02	-0.04%		독일	2.65%	2.61%	+4bp
	중국	3,387.6	3,380.5	+0.21%		영국	4.76%	4.70%	+5bp
	일본	37,299	37,529	-0.61%	CDS 5y	한국	32bp	31bp	+1bp
	한국	2,625.6	2,601.8	+0.91%		중국	55bp	52bp	+3bp
환율	달러지수	99.61	100.12	-0.51%	위험 지표	EMBI+	-	376	-
	유로화	1.1331	1.1283	+0.43%		VIX	20.87	18.09	+15.37%
	엔화	143.68	144.51	+0.58%		WTI유	61.57	62.03	-0.74%
	위안화	7.2015	7.2170	+0.22%	원자재	구리	463.8	462.0	+0.40%
	원화	1,387.2	1,392.4	+0.37%		금	3,315.0	3,290.1	+0.7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국채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급등. 재정 우려 심화와 부진한 입찰 수요를 반영

- 5/21일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4.60%(+11bp), 5.12%(+13bp), 5.09%(+12bp)를 기록. 특히 20년물 및 30년물 금리는 각각 `20년 및 `23년 10월 이후 최고치.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5조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매도 증가가 원인
- 특히 이날 존슨 하원의장은 주·지방세 공제(SALT) 상한선의 상향(1만 달러→4만 달러)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공화당 내부 이견 해소 기대가 커지며, 5/26일 전후 감세안 통과 가능성도 제기. 다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지출 삭감 없는 감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 IMF의 고피나스 부총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 아울러 GDP 대비 부채를 줄이는데 필요한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얼마 전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의 경우 무역불균형 보다는 재정적자 증가를 더 경계한다고 언급
- 20년물 국채 입찰에서의 부진한 수요 또한 금리 급등을 촉발. Moody's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금번 160억 달러 규모의 입찰에서 낙찰금리는 5.047%로, 사전 시장금리(5.035%)를 상회했고, `23년 10월 이래 처음으로 낙찰금리가 5%를 상회. 이번 결과는 공급 증가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
- 한편 전문가들은 장기금리 상승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 `23년~`24년에는 경제 성장 기대가 높아 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이 설득력을 지녔지만, 최근에는 자본비용의 증가라는 역풍이 존재하여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Deutsche Bank)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중국産 배터리 소재에 상계관세 예비 결정. 對中 AI칩 수출규제는 유지

- 상무부는 중국의 배터리 핵심 소재 업체들이 중국 정부에서 최대 721%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며 관련 상품에 상계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 실제 관세 부과 여부의 최종 판결은 금년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예상. 한편 백악관은 Nvidia의 對中 AI칩 규제 완화 요청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발표

■ 미국 주간 원유재고, 2주 연속 증가. 유가는 공급 과잉 가능성에 하락

- 에너지정보처(EIA)에 따르면, 지난 주 상업용 원유재고는 전주 대비 130만 배럴 증가한 4억 4,320만 배럴로 예상치(80만 배럴 감소)를 상회. 이는 공급과잉 신호로 해석되었고, WTI 가격은 이를 반영하여 전일비 0.7% 하락한 배럴당 61.57달러 마감

■ Goldman Sachs, 투자자의 미국 금융자산 선호 약화. Morgan Stanley는 弱달러 예상

- Goldman Sachs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고 유럽·아시아 투자를 확대. 일례로 금년 유럽 주식 ETF의 자금 유입 규모는 340억유로로 미국 ETF의 유입 규모의 4배. Morgan Stanley는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미국 주식과 국채 비중 확대를 권고했으나, 달러화는 향후 12개월 9% 추가 약세를 전망

■ ECB 주요 인사, 물가 목표 달성에 근접. 일부는 추가 금리인하 주장

- 권도스 부총재는 유로화 강세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며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고 언급.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센테노 위원은 유로존 경제의 취약성을 고려해 물가가 목표치(연율 2%)를 하회하지 않도록 정책금리를 중립 수준(1.5~2%)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 영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5개월 만에 최고치. 향후 금리인하 전망은 약화

-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5% 올라 전월(2.6%) 대비 상승세 강화. 특히 서비스 물가 및 항공요금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약화되어, 다음 추가 금리인하 시기를 11월로 예상(LSEG)

■ 일본 4월 수출, 전월비 증가세 둔화. 미국 관세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 전환

- 4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0% 늘어 전월(4.0%)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무역수지는 1,158억엔 적자로 전환. 특히 對美 수출은 1.8% 감소. 전문가들은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전분기 역성장에 이어 침체 위험이 증가했다고 경고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S&P 제조업 PMI, 5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4월 기준주택판매
-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및 ECB 권도스 부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탈세계화의 비효율성,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의 상승을 초래 - 블룸버그

(Deglobalization's Threat to the Bond Market)

- 탈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 상호 신뢰가 약화되었고, 이는 각국이 산업육성에 더 많은 투자에 나선다는 의미. 실제로 독일은 국방비 지출 확대를 발표했는데, 이후 국채금리가 상승. 또한 자금자족을 위한 투자 유인이 늘어나고, 생산성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를 높이는 결과 초래
- 아울러 최근에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 및 엔화 강세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음을 시사. 특히 투자자들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덜 파괴적인 방법으로 달러화 약세를 선택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

■ 미국계 중소은행,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채권 손실로 어려움 직면 - 블룸버그

(Tariffs Threaten Double Blow to Small US Banks)

- 정부의 관세인상을 포함한 무역정책과 감세 등으로 향후 저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 그리고 이는 모기지증권 등 중소은행이 보유한 채권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미실현 손실의 증가로 연결. 특히 중소은행의 경우 대형은행에 비해 해당 자산의 비중이 높아 관련 피해가 더욱 가중될 소지
- 이러한 미실현 손실이 당장 중소은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겠으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취약성이 증폭되면서 신뢰 상실에 따른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만일 중소은행이 실제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다면, 트럼프는 결국 연준의 파월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관세전쟁, 비교우위 이론에 의한 무역의 상호이익 효과를 간과 - Financial Times

(Tariff wars ignore win-win from comparative advantage in trade)

- 美中 관세전쟁은 일시적 휴전 상태이나,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 무역 마찰 증가의 현실로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이 불가피. 미국은 공정무역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영구 고율 관세 부과를 선택했으나, 이는 오히려 심각한 정책 오류일 소지
- 양국이 모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과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교우위 이론은 국제 무역이 제로섬이 아닌 윈윈 게임임이 증명. 이에 미국 관세정책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여 미국과 교역국 모두 빈곤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소통 강화 노력, 시나리오 기반 통화정책 보고서 도입 등이 필요 - 블룸버그

(The Fed should prepare markets for the unexpected)

- 연준은 연 4회 경제전망요약(SEP)을 통해 FOMC 위원 19명의 경제 및 금리 전망을 공개. 그러나 버냉키 前 의장은 이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분기별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를 주장. ECB와 영란은행 등 여타 중앙은행들도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기본 전망 이외에도 대안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
- 이러한 시나리오 기반 접근법은 경제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보다 신속한 정책조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시장 충격 완화에도 긍정적. FOMC 위원들의 합의된 전망과 대안 시나리오 제시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응이 어렵다면 실무 보고서가 차선택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조속히 실행에 옮길 필요

■ 미국의 부채 문제, 대규모 사회보장지출 조정을 통한 해법 모색이 요구 - 블룸버그

(America's Debt Problem Is Also a Retirement Problem)

■ 美中 반도체 갈등, 양국 간 무역 휴전과 대화 진전에 악영향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US-China Tensions Over Chips Risk Hurting Trade Truce, Dialogue)

■ 영국의 차입 전략, 장기채 금리 급등 등으로 전면적인 개편 필요 - 블룸버그

(Britain's Borrowing Strategy Needs an Overh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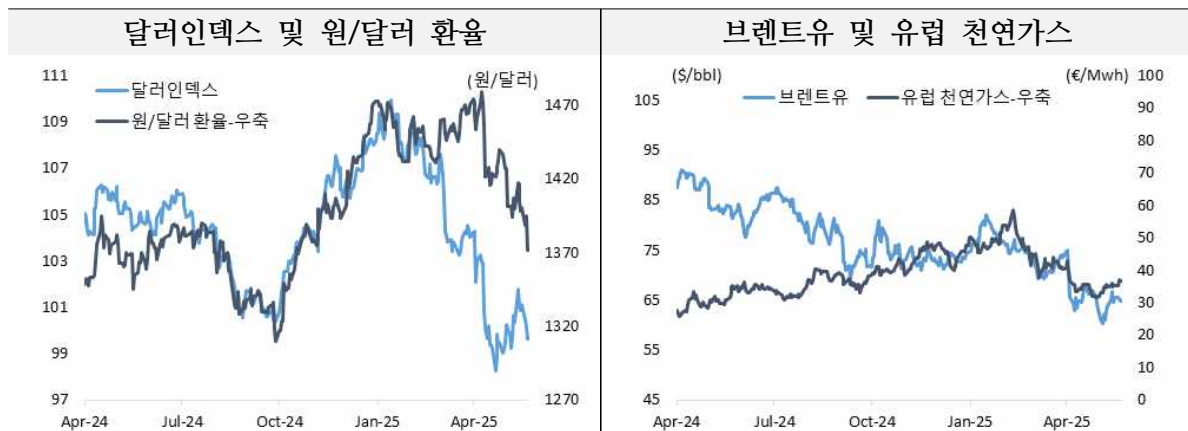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위험, 청년층 구매수요 감소로 심화될 소지 - Financial Times

(China's developers at risk as young home buyers walk a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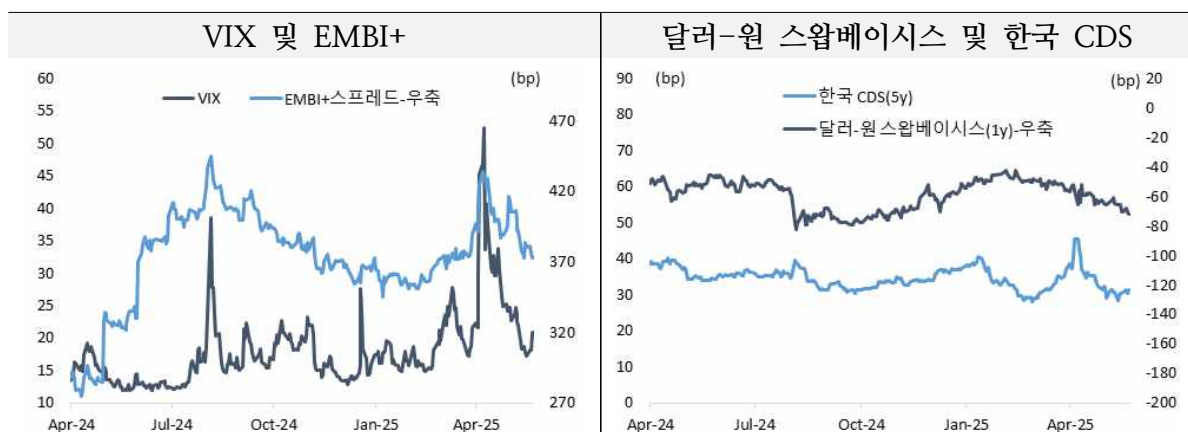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